쉬어가는 이야기, 건축 그리고 사람

Relaxing story : architecture and human

글. 김성환_ Kim, Sung-hwan
Lanz Architekten und Generalplaner

이번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일중에, 올 한 해를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개개인의 개성이 다양한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에 대한 하나의 호기심과 같은 것이었다. 이 호기심에서 시작된 지난 1년여 간의 인터뷰는 한 달 혹은 두 달 이상 반복되는 준비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건축분야가 가지는 특성상 음악, 미술, 공학 등

2012년 팀원들과 함께했던 Michel Casertano(가운데 아래)

다방면에 걸쳐 테마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나눈 이야기에 큰 보탬이 되었다. 특히, 현실적인 고민과 스스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점은 항상 고무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으로 대화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점은, 교육의 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맞닥뜨리는 현실 속의 냉정함은 본인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그 장애물을 스스로 넘기 위해 끝까지 몰두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끈기는 이 곳 유럽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중에 하나였다.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를 것이 크게 없다고 본다. 다만, 끈기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 자신이 가지는 장점을 스스로 극대화 시키는 점은 유럽사회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사회에서 언급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는 자세 역시 인상적이었다.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겹치고, 그들이 태어나고 성장해온 시간과 공간이 매우 다르기에 함부로 타인의 상황을 단정 지으려 하지 않았다. 건축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더욱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다양성과 다각성이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다. 실제로 교과서나 강의에서 바른 말처럼 들리는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들은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Atelier Brückner 사무실 풍경, Michel Casetano씨의 작업환경

예를 들어, 지난겨울에 인터뷰가 진행된 Michel Casertano씨와의 경우 그는 실제로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축구를 한번 하면, 그의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그대로 드러나고는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과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전체가 함께 함을 도모하여 팀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데, 그의 이러한 자세는 회사에서도 연결이 되어, 그가 보여주는 리더로서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는 한다.

작가 신봉철

한편으로는, 매번 기사 마감과 본업사이에 쫓겨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던 탓에 항상 더 잘 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왕복 7~8시간 되는 곳을 찾아가 대화하고, 돌아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글로 옮기는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준비하는 나 자신에게는 다른 이의 생각을 감사하게도 공유할 수 있다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글과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주던 많은 분들은 반복된 일상생활에 한 번씩 쉬어갈 수 있

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질문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고민들을 끝까지 공유하려 했었고, 본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끈기 있게 한걸음씩 나아갔는지에 대해 열심히 대화했다. 언어에 대한 제약이 사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바탕으로 탐구하는 자세로서 또한 각자의 인생을 서로 관찰하는 자세로 반나절 이상 의자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항상 보람이 되는 마무리가 되고는 하였다.

작가 신봉철과의 대화가 그랬다. 그의 작업은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인데, 지난 인터뷰에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에게 스스로 완성도 있는 작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료에 대한 탐구를 끊임없이 한다. 실제로 그의 작업실에서 그가 보여줬던 다양한 샘플들은 그가 하나의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가 자신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끝까지 해결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의 자세는 현재 그가 뮌헨에서 올 한해 성공적인 한해를 보낼 수 있었는지 이해 할 수 있었다.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기한에 맞춰 적당한 그림을 그려내는 작가가 아닌, 기한을 연장하여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 책임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파고드는 그의 집요함은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사실,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다시 한 번 쓰이는 순간, 말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어휘나 어감에서 오는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이러한 미숙한 부분을 스스로 줄이고자, 작가 신봉철과의 작업은 더 많은 만남을 필요로 하였고, 작은 차이에서 오는 전달력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사실, 나 스스로에게 개인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Stefanie Staby씨와 Seven Elohim과의 인터뷰다. 계획 했던 부분과 달리 인터뷰과정이 지연되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사실 이 부분에

The Echo of Light 전시장 풍경, Seven Elohim in Munich

학교 작업실에서 작품 배치를 하는 작가 신봉철

서 고마운 것이, 이들이 보여줬던 인터뷰에 임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 인터뷰를 준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 거절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거절이 되었을 경우 다음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기에 이 생각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 나 스스로 또한 이해하려면 많이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Stefanie Staby, 그리고 Seven Elohim의 Florian Dressler, Mela Gruber씨가 제공했던 편안한 분위기는 사실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

해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많은 예를 들어 설명했던 부분은 다음 기사에서 계속 될 예정이다.

해외 건축 동향이라는 타이틀 아래 독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경향을 사실 지면 두 장에 담아 전달하기란 쉬운 방법은 아니다. 한국에서 보여지는 변화만큼 다이나믹한 경향을 띠지 않는 독일 건축의 특성상,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내 자신이 그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올 한해는 나에게 그 밑바탕을 다지는 작업이 사실 필요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나의 편협한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자주 있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2015년이 어느덧 11월 이제 한 달 뒤면 2016년이 된다. 매번 기사를 준비하고 두 달에 나눠서 마감을 하다 보니 때로는 시간과 계절이 맞지 않는 기사도 있었고 그러다보니, 좀 더 부지런하게 기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한번쯤, 멈추고 돌아봐야할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시기와 때가 맞는 기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글을 또한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해에는 또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기사를 준비하게 될지 설레임도 있다. 다음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